

고령 개실마을의 공동 공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ublic Space Revitalization Project of Goryeong Gaesil Village

이 동 주* 이 왕 기**

Lee, Dong-Ju Lee, Wang-Kee

Abstract

The subject village of our study has numerous tourist attractions around it, and possesses various Confucian cultural heri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ublic space improvements of a village possessing abundant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that has turned into a experience-tour village.

As for the research method,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were identified. In addition, infrastructures were classified by livelihood based infrastructure, tour based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e based infrastructure in order to analyze individual public space improvement cas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ublic space improvements of the village improved the educational facilities and tour resources using historical resourc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ublic spaces for residents to get along with tourists(who are willing to experience the village) were created.

키워드 : 전통마을, 공동 공간, 기반시설

Key words : Traditional Village, Public Space, Infrastruct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은 농촌사회의 피폐와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정부에서는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농촌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간 추진되어온 농촌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¹⁾이

서 주민의 참여의식이 약화되었고, 또한 도시적이고 획일적인 개발방법으로 인해 농촌의 독특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多元的)이고 독특한 기능을 살린 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도시민에게 휴양·체험

1) 2000년 이전에 시행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하향식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시행된 새마을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방관청과 새마을 지도자에 의해 일부 하향적 방식으로 추진한데서 간접적 상향식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정회원, 목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와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마을단위 정비 사업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역사·문화자원을 지닌 농촌마을이 정비 사업을 통해 마을 내 공동공간이 어떤 형태로 정비되었는가를 분석 고찰하여 차후에 시행될 수 있는 유사한 마을 정비계획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대상은 2001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마을로 선정된 고령 '개실마을'이다. 연구범위는 마을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조사를 통해 마을 내 공동공간의 정비사례를 각 유형별로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 발간된 마을 개발계획 보고서²⁾, 마을 정비사업 자료³⁾ 기타 마을관련 자료⁴⁾를 바탕으로 마을 현황과 공공시설 정비사례를 추출하고, 기반시설 조사를 위해 마을을 방문하여 시설현장을 보완 조사하고, 아름마을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을의 인문현황, 마을 배치, 거주환경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공동 공간 정비사례의 분석은 생활 기반시설, 관광 기반시설, 영농 기반시설, 기타 사업시설 등 각 시설별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대한 사례분석, 시설정비 진행방법, 시설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2.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정책고찰

2.1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 배경

아름마을⁵⁾ 가꾸기 사업은 쾌적한 자연 및 생태 공간,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농어촌마을의 테마개발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이상이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⁶⁾.

2.2 전통농촌마을의 개념 및 정비원칙⁷⁾

전통적 농촌마을은 오랜 세월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역사성을 간직한 반촌(班村)과 민촌(民村)을 포함한 정주단위의 지역집단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일련의 마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전통농촌마을의 올바른 보전과 발전방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 변화들을 수용하는 개념인 지속가능한 형태의 정비를 추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형태의 추구를 위해서 마을의 지속성과 통합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고려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마을현황 분석

3.1 자연환경

외부지역에서 연구대상지인 개실마을로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에서 40분, 고령읍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마을로의 진입은 88올림픽 고속국도 고령IC와 고령읍에서 남측으로 연결된 국도 33호선을 따라 약 8km지점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은 매우 용이하다.

개실마을이 위치한 쌍림면은 고령군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우곡면(牛谷面), 서쪽은 경상남도 함천군 야로면(冶爐面), 남쪽은 함

2) (주)VTM명소마케팅센터, 대가야마을(개실마을) 가꾸기 기본계획 보고서, 2002.5
3) 고령군청 주민자치과, 개실마을 정비사업 관련 내부자료.
4) 개실마을의 특성 파악을 위해 각종 인터넷자료(마을 및 군청, 문화원 홈페이지 자료)와,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함.

5) 아름마을이란 양팔을 펼쳐 껴안은 돌레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써 풍요한 공동체적이 삶이 살아있는 농촌마을을 지향하며, 아름다운 농촌도 아울러 의미한다.
6) 행정자치부, 아름마을사업 보도자료, 2002.5.6일자
7) 행정자치부, 21세기 새로운 농촌만들기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pp.135~153

천군 울곡면(栗谷面)·쌍책면(雙冊面), 북쪽은 고령읍에 접한다.

쌍림면의 중앙부를 안림천(安林川)이 관류하고 있어 유역 일대에 발달한 기름진 평야를 중심으로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개실마을의 지형지세는 마을 뒷산인 화개산(華開山 해발 193m)에 둘러싸여 있으며, 산자락 끝부분인 평탄한 지형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주택의 좌향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주로 남향으로 이뤄져 있으며, 주거지 앞으로 지방도가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으며, 도로 넘어 일부 경작지와 안림천의 지류인 마을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주거지 좌·우측으로는 경작지인 논(畝)들이 펼쳐져 있다.

3.2 인문현황

(1) 마을의 역사

연구 대상지인 합가리(合伽里)는 과거 고령군 하동면 지역으로 1914년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가동과 하가동을 병합하고 합가동이라 하여 쌍동면에 편입 되었다가, 1930년에 쌍동면과 임천면이 병합됨에 따라 쌍림면에 편입되고 1988년에 동이 리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개실마을은 무오사화로 몰락한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⁸⁾ 가문은 경남 밀양과 합천

8) 본관 선산(善山). 호 점필재(佔畢齋). 시호 문충(文忠). 경남 밀양 출생. 1453년(단종1) 진사가 되고 1459년(세조5)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 도승지·이조참판·경연동지사(經筵同知)·한성부윤·공조참판(工曹參判)·형조판서·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에까지 이르렀고, 문장과 경술(經術)에 뛰어나 영남학파(嶺南學派)의 종조(宗祖)가 되었다.

사망 후 1498년(연산군4)에 그가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관(史官)인 김일손이 사초(史草)에 적어 넣은 것이 원인이 되어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났다. 이미 죽은 그는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으며, 문집이 모두 소각되고, 많은 제자가 죽임을 당하였다. 중종(中宗)이 즉위하자 죄가 풀리고 숙종(肅宗) 때 영의정이 추증되었다. www.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재인용)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거주하다가 고령에 이거하여 살면서 임진왜란을 당하고, 효종2년인 1651년에 점필재의 5대손 남계공 김수휘가 마을에 정착하였다.

마을의 지명 유래⁹⁾를 살펴보면, 입향조인 김수휘가 마을지형을 살펴니 앞산은 점무봉, 뒷산은 화개산이라 꽃피고 나비가 춤추는 형국이라 하여 개화실(開花室)이라 하고, 꽃피고 아름다운 골이라 하여 가곡(佳谷)으로 불리다가 음이 변하여 개애실, 개실이 되었다. 개실마을의 위쪽마을은 상가(上伽)곡, 아래쪽에 있는 마을은 하가(下伽)곡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합가(合伽)리라 한다.

(2) 인구 특성

마을 주민의 연령별 분포현황 분석을 위해,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마을 내 실거주자 현황을 조사하였다.

개실마을은 행정구역상 쌍림면 합가 1리로, 60세대 155명이며, 세대 당 인구는 평균 2.6명, 성비는 남자 44.52%, 여자 55.48%로 나타났다.

연령대 인구분포 현황은 20대 이하 계층이 6.45%, 20·30대의 청·장년층은 학업과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어 계층별 거주 비율이 2.5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40·50대의 장년층은 16.78%로 나타났으며, 마을 내 가장 많은 계층인 60대 이상의 노령층은 74.19%로 마을 주민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수치인 65세 이상 노령자 비율도 전체 연령층 대비 73.55%로 우리나라 농촌전체 노령자 비율¹⁰⁾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9) 고령군, 고령군지, 1996, pp235~236.

10) 2006년을 기준 실시한 통계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자는 전체인구 대비 9.3%이며, 농촌지역 65세 이상 노령자의 비율은 29.43%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명)

구분	0-19	20-39	40-59	60대 이상	합계
인구수	10	4	26	115	155

개실마을은 점필재(佔畢齋)선생 후손의 세거지로 마을 전체가구 중 75%가 일선김씨(一善金氏)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손을 중심으로 협동과 단결력이 강한 집성촌의 특징을 보인다.

(3) 마을의 경제

개실마을의 소득원을 살펴보면 농업생산 부분과 농촌체험관광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농업부분은 주로 논(畓)농사와 밭(田)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의 경작지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소득을 높이고 있다.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로 오리, 우렁이, 긴꼬리 투구새우 농법 등의 친환경 농법을 통한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는 딸기, 기타 곡류와 채소들은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도농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되어 주된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둘째, 마을 정비 사업을 통해 이뤄진 소득부분으로 농촌체험관광을 들 수 있는데, 체험장과 공동민박시설을 조성하고, 농가민박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과 주민 교육 등을 통해 체험·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마을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다.

3.3 배치 및 거주환경

(1) 마을의 배치형태

마을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 체계를 살펴보면, 고속국도 12호선 고령IC가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요 접근로는 국도 33호선이 고령 읍내와 마을을 연결시키며 통과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큰길은 마을을 통과하고 있는 국도 33호선이라 할 수 있다.

국도 33호선에서 마을의 안길이 분기되어 마

을 주거지를 통과하며, 마을 안길에서 분기된 샛길은 각 주택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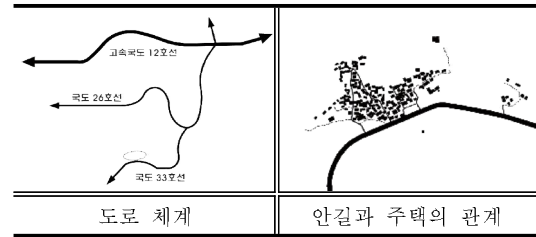


그림 2. 도로와 주거지와의 관계

개실마을의 배치는 북측의 화개산 자락에 조성된 대나무 숲 아래에 주거지가 입지해 있고, 주거지 앞으로는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가 지나가고 있다. 도로변으로는 안림천의 지류인 소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마을 하천 너머로 경작지인 논(田)들이 펼쳐져 있다.

전체적인 마을의 지형은 북고남저(北高南低)형이라 할 수 있으며, 마을의 주거지 군락은 집촌(集村)을 이루고 있으며, 점필재 종택이 위치한 곳에서 서쪽으로 마을 주거지가 확장되며 개실마을이 확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비교적 평지에 위치한 개실마을은 주거지 배산과 안산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남북으로는 폐쇄적이고, 동서로는 개방적인 입지의 형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경작지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마을의 남서측에 위치한 합가곡 못에서 흘러 내려오는 마을의 하천은 마을을 가로질러 동측에 위치한 안림천과 만나게 된다. 하천의 수량은 비교적 많은 편으로 농업용수와 친변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이용되고 있다.

주거지의 좌향을 살펴보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마을 내 주택들의 배치는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경작지의 위치는 주거지의 좌우측과 전면에 위치한다. 산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한 일부의 경작지는 밭(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지 좌우측면과 전면에 위치한 대부분의 경작지는 논(畓)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거환경 현황

마을 내 주택들의 경관을 살펴보면, 전통한옥 형태와 개량한옥 형태의 주택들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량한옥들은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실마을은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 지붕개량 공사를 한식 기와로 정비한 결과, 현재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신축되는 주택들도 마을 경관과 어울리게 건축되어 지고 있다.

마을 전체 주택 중 75% 정도가 부분적으로 개수·보수된 상태로 주택 노후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마을 골목길은 흙담으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고, 금번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보수되어 옛 마을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마을 내 전체적인 경관은 전통한옥 마을로 조화롭고, 주거환경 또한 양호한 상태이다.

4. 공동 공간 정비사례 분석

4.1 공동 시설물 배치 현황

마을 내 기존 공공시설물은 점필재 종택을 기준으로 서측의 국도변에 인접하여 마을회관이 있고, 서측의 주거지와 경작지의 경계부분에 새마을창고가 노후된 모습으로 위치해 있다.

신규 공공시설물은 대부분 점필재 종택 앞에 집중되어 조성되었다. 종택 옆으로는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었고, 그 앞으로는 다목적 광장을 중심으로 떡메치기 체험장과 마을안내센터, 예절교육장, 다목적회관이 위치해 있다. 마을을 통과하고 있는 지방도로 너머에는 마을 주민의 휴게 기능과 각종 이벤트 광장으로 활용되는 배꼽마당¹¹⁾이 조성되어 있다.

마을의 소득기반이 영농사업 위주에서 농촌 문화 체험마을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어, 신규 시설물의 대부분은 체험·관광객의 활동에 필요

11) '배꼽마당'은 마을에 있는 작은 마당을 뜻하는 용어로 이곳에서는 마을주민과 체험관광객이 어울려 풍물놀이, 체험행사 등을 치루고 있는 열린 공간이다.

한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구분	번호
기존 시설	① 마을 회관·경로당 ② 새마을창고 ③ 점필재 종택 ④ 도연재
신규 시설	⑤ 유물전시관 ⑥ 떡 체험장 ⑦ 예절교육장 ⑧ 다목적 회관 ⑨ 하수처리장 ⑩ 배꼽마당

그림 3. 마을 주요시설물 배치도

현재 공동 공간 시설물 배치형태를 볼 때, 마을의 중심권역은 기존의 마을회관이 위치한 곳에서 신규 조성물인 다목적 광장 부근으로 이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4.2 기반시설별 정비사례

(1) 생활 기반시설

마을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마을 앞으로는 안림천의 지류인 마을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마을 남서측에 합가곡이란 저수지가 위치해 있다. 수량은 상시 풍부하고, 수질이 깨끗하여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 내에는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아름마을 사업을 통해 일부 미처리 되던 오·폐수처리를 위해 마을 하수관로를 재정비하고, 신축된 다목적회관 앞에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마을 주거환경이 양호한 상태이다.

기존 생활기반시설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있다. 노후되고 협소했던 경로당은 금번 아

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개·보수되어 마을 노인들의 휴게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규 생활 기반시설 정비로는 상·하수도시설, 마을안길 포장, 빈집정비 사업과, 일부 유실된 상태로 방치되던 흙담을 정비하고,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진 4. 생활 기반시설 전경

신축 시설물로는 유물 보존각과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였다.

유물 보존각은 점필재 종가의 사랑채 옆과 불천위 사당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 이곳에 있는 공가(空家)를 철거하고, 유물 보존을 위해 전통 목구조 맞배지붕 형식의 정면3칸, 측면1칸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유물 보존각의 신축으로 종가의 규모 및 권역은 확장된 상태이다.

다목적 회관은 마을 집회공간으로도 활용되며 체험·관광객들을 위한 공동식당 및 숙소 기능과 세미나 공간 등의 다목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목적 회관은 지상1층, 92평의 규모이며, 경량철골구조에 사이딩 패널로 벽체와 금속기외로 마감되었다. 실의 구성은 주방과 다목적 공간, 창고 등이 있고, 공중화장실과 샤워장이 마련되어 있어 체험·관광객의 편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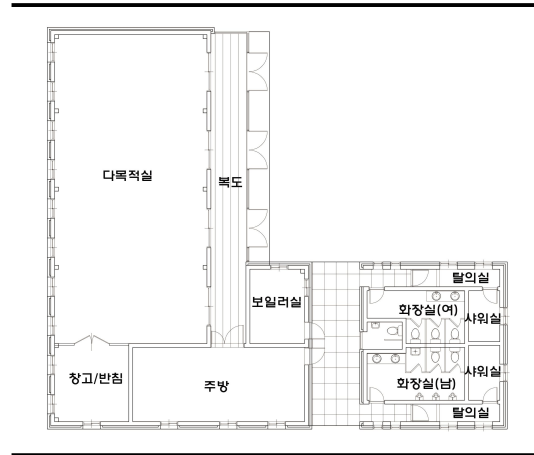


그림 4. 다목적회관 평면도

(2) 관광 기반시설

마을 내 관광을 할 수 있는 기존 시설물은 점필재 종택과, 도연재, 사당 등의 전통 건조물이 있다.

신규 관광 기반시설 조성으로는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에서 마을주변의 진경을 조망하고, 산림욕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산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진 5. 관광 기반시설 전경

마을 앞 하천변에는 다목적 광장인 배꼽마당

을 조성하여 휴식 공간 제공과, 주민들과 체험객이 함께 모여 축제를 펼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였다.

신축 시설물로는 개실각을 신축하여 마을운영 사무실과 농산물 판매 공간을 설치하였으며, 휴게 및 식당과 정보검색실로 구성되어 있다. 개실각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1층, 55평의 규모이며, 외벽은 목재로 마감되고, 지붕은 경사지붕의 형태이다.

전통예절 학습을 위한 예절교육장을 설치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벽의 마감은 산화동판(酸化銅版)으로 마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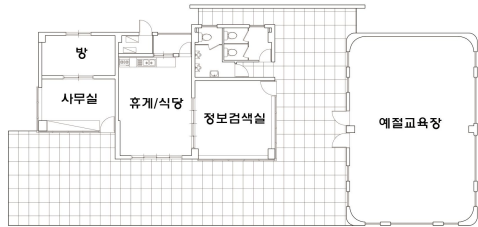


그림 5. 마을 안내센터 및 예절교육장 평면도

마을 정비사업 이후 추가사업으로는 체험·관광객의 체험 장소 마련을 위해 전통목구조에 초가지붕으로 구성된 떡메치기 체험장을 신축하였다.

기타 사업으로는 주택이 공실(公室)을 주민 스스로 정비하여 개인민박을 유치하고 있다.

(3) 영농 기반시설

개실마을은 현재 논농사와 딸기농사 등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체험·관광객에게는 친환경농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농 교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 추진한 영농사업으로는 다목적 회관 앞에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벤처농장(Venture)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와 농사 체험행사 등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장

을 고소득 작물 시험재배지로 활용하여 성공적 재배 기술을 익히는 장소로 이용될 예정이다. 소득 작물의 선정 및 기술은 경북 바이오 연구원과, 약초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표 2. 주요 시설물 현황

구분	생활 기반시설	관광 기반시설	영농 기반시설
사업 전 주요시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상·하수도시설	점필재 종택 도연재 등	-
사업 후 주요시설	1차 사업 상·하수도 시설 마을 하수처리장 마을 안길 정비 민집 정비 휴담 개·보수 경로당 개보수 유물 보존각	개실각 (농산물판매 및 예절 교육장) 등산로 개설 배꼽마당 (쉽터공원) 민박정비	벤처 농장
	2차 사업	다목적 회관	떡메치기 체험장 소득작물 개발

4.3 마을 개발방향 및 예산집행 현황

개실마을은 인근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택들의 대부분이 전통기와로 마감되어 있어 여타의 마을과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며, 점필재선생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 고령군 내에서도 유교문화 유적과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다. 또한 인근지역에 지산동 고분군 등의 가야문화와 해인사, 부곡온천 등의 많은 관광자원이 분포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마을기반시설 확충과 전통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전통문화 체험마을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마을 개발 계획이 설정되고, 행정관청의 지원으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인 1차 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2002년에 착공하여 2004년 중순에 완공 되었다.

총 사업비는 16억 1천 5백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사업비 형태는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되고, 지방비 4억2백만원, 타부처 사업비 2억1천3백만원이 투자되었다.

투자항목을 살펴보면 생활 기반시설 9억 8천

3백만원, 관광 기반시설 3억 9천 2백만원, 기타 사업 2억 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차 사업으로는 지속적인 마을 정비를 위해 타 부처 사업을 유치하여 마을 다목적센터, 떡메치기 체험장을 건립하고, 체험프로그램 및 소득 작물을 개발 중에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농촌관광에 필요한 각종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마을단위 정비 사업에 의해 전통농촌 체험마을로 전환된 사례를 대상으로, 마을의 개별적 특징과 이를 이용한 공동 공간 정비 사업에 관하여 조사·분석한 것이다.

개실마을은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비교적 성공적이란 평가를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리고 있다. 성공적인 마을 정비사업 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마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인근의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와 30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가야 관광권역에 속해 있어 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② 마을의 역사자원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③ 개실마을은 점필재 선생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동족 집성촌으로 혈연적 동질성으로 인해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다.

노인회를 중심으로 예절교육, 부녀회에서 추진하는 방문객 식사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가민박 제공이 있고, 청년회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 및 풍물놀이 학습 및 공연, 마을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의 장기적 비전 설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부분으로, 타 부처 마을단위 지원 사업 유치와 마을리더의 지속적 교육, 마을 주민의 관광 서비스 교육, 소

득 작물 개발지원 등 마을 정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 공동 공간 정비 사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환경 친화적인 마을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상·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제거하여 수변체험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거지 흙 담장 정비와 공동우물 복원,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마을 경관을 확보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 커뮤니티 시설 보강사업으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마을 회의실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기존 마을회관은 개보수 하여 노인 휴게공간인 경로당을 조성하였다.

② 마을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시설 정비 사업으로, 전통예절 교육장을 신축하여 마을의 역사와 예절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향토음식과 전통놀이 등의 기능을 수용하는 시설인 다목적회관과 떡메치기 체험장, 배꼽마당 등을 신축·조성하고, 샤워장과 공동화장실 등 체험·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다.

③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향상을 위한 영농기반조성 사업으로 벤처(Venture)농장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법 체험행사와 소득 작물 시험재배지로 활용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행정자치부, 21세기 새로운 농촌만들기 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2001.
2.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관련 보도 자료, 2002, 2003.
3. 고령군, 대가야 마을(개실마을) 가꾸기 기본계획, (주) VTM 명소마케팅센터, 2002. 5.
4. 고령군, 고령군지, 1996.
5. 개실마을, 제4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자료집, 2005. 9.
6. 개실마을 홈페이지(www.gaesil.net)
7.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